

통일신라 금속공예의 성취와 국제교류: 국보 제174호 <금동 수정장식 촛대>

신숙*

- I. 초와 촛대, 새로운 문화
- II. <금동 수정장식 촛대>의 현황과 구성
- III. <금동 수정장식 촛대>의 제작기법과 문양
- IV. 新文化의 전파: 일본과의 교류

삼국의 문물을 통합하고 폭넓은 국제 교류에 따른 소통의 장이 마련되면서, 통일신라의 공예는 진일보하며 변화한다. 수준 높은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다종다양한 기물을 생산하였으며, 새로운 공예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도 갖추게 된다. 삼성미술관에 소장된 국보 제174호 <금동 수정장식 촛대>는 이와 같은 통일신라시대의 예술적 성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공예품이다(도 1).

한 쌍으로 구성된 촛대는 금속과 보석 재료로 만들었고 적절한 비례와 균형 잡힌 외형이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초빙교수

** 본 논고는 2015년 8월 삼성미술관 Leeum 특별전 기념 학술세미나 <세밀함으로 읽는 한국미술>에서 발표한 「통일신라 금속공예의 성취와 국제교류: 국보 제174호 <金銅水晶嵌裝燭臺>」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당시는 소장처의 유물명을 참고하였지만 본고는 국문과 영문 모두 문화재 명칭 용례집을 따르기로 한다. 또한 삼국 통일 이후를 발해와 함께 ‘南北國時代’로 보는 견해에 공감하지만 지정된 문화재의 공식 명칭에 따라 ‘통일신라’ 시대로 언급하는 점도 밝혀둔다.

섬세한 기술로 구현된 꾸밈새도 뛰어나다. 또한 초를 꽂아 불을 밝히는 기구로, 이전 시대와 달라진 새로운 조명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대표적인 금속공예품으로 일찍부터 주목받았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관심에 비해 연구 성과는 많지 않다. 출토지가 불분명하고 비교할 수 있는 유물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산화작용으로 인한 표면의 변화로 세부 관찰이 어려운 점도 무관하지 않다.



도 1 <금동 수정장식 촛대>, 통일신라, 국보 제174호, 높이 36.8cm, 밑지름 21.5cm, 삼성미술관 리움

<금동 수정장식 촛대>는 경주지역 출토로 전하지만 명확하지 않다. 세간에 알려질 당시 제작연대는 8세기에서 9세기로 비정되었으며,¹ 이후 고려시대 작품으로 보는 견해도 제시되었다.² 현재,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일신라의 유산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異見이 없다.³ 따라서 유물의 제작 시점이 연구의 시작은 아니며, 촛대의 용도와 재료 및 미술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에 중심을 둘 것이다. 특히 초의 사용으로 비롯된 공예품의 변화, 수용된 문화의 발전, 그리고 국제 교류 등의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물의 제작연대를 구체화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I. 초와 촛대, 새로운 문화

촛대는 초의 사용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공예품으로, 받침대에 원통형 기둥을 올리거나 뾰족한 침을 세워 초를 꽂을 수 있게 만든다. 기존에는 원형 기물에 기름을 담고 심지를 넣어 태우는 방식이 주류였다. 초는 기름을 고체로 만들어 내부에 심지를 박아 성형한 것으로, 현재까지

¹ <금동 수정장식 촛대>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韓國美術二千年>(1973.4.17-6.17)을 비롯해 여러 전시에 출품되면서 알려졌으며, 1974년 7월에 국보 제174호로 지정되었다. 당시 촛대는 통일신라 8-9세기 유물로 인식되었고 진홍섭 선생은 새로운 자료로 소개하면서 제작연대를 8세기 후반으로 추정하였다(진홍섭, 『金銅水晶嵌裝燭臺』, 『미술사학연구』 118(1973), pp. 16-20 참조).

² 강순형, 『수정박이 금동초꽂이 살핌』, 『문화재』 28(1995), pp. 211-225.

³ 이난영, 『韓國古代の燈燭具-高麗時代の光明台を中心に』, 『高麗美術館研究紀要』 5(2006), pp. 276-277; 주경미, 『금동수정장식촛대』, 『국보 금속공예』(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2008), pp. 186-191; 신숙, 『한국 미술에 보이는 보석재료와 장식』, 『금은보화』(삼성미술관 리움, 2013), pp. 137-138.

도 애용되는 중요한 발명품이다. 불꽃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연소되기 때문에 빛의 밝기를 균일하게 지속할 수 있고 그을음과 냄새도 적다. 또한 휴대가 편리한 장점도 갖추고 있어, 초는 실내를 밝히는 조명구로 선택되었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촛대를 만들게 된다.

근대 이후, 석유에서 추출한 파라핀으로 초를 주로 만들지만 예전에는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다양한 기름이 사용되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재료인 밀랍으로 만든 초가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서 비롯되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바 없다. 고대에는 야생의 벌집에서 채취한蜂蜜에 물을 첨가하여 蠟 성분을 분류하였으며, 이때 얻어진 黃蠟을 가열하고 성형하여 굳히면 초를 만들 수 있었다.⁴ 또한 사철나무나 광나무에 서식하는 백랍층의 분비물에서도 같은 성분을 추출할 수 있었는데, 白蠟이라고 한다.⁵ 모두 자연에서 다량으로 수집하기는 어려웠고 수고로운 제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초는 고가의 생산품이었다. 따라서 특정 계층에서만 향유할 수 있었고 그들의 선호도가 반영된 촛대가 제작되었다.

초와 관련된 문헌 기록은 중국에 다수 전한다. 『周禮』에는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墳燭과 庭燎를 갖춘다고 하였는데, 鄭玄과 鄭司農의 주석을 보면 분축과 정료는 불을 밝히는 것으로 실외용과 실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⁶ 墳燭은 蕢蜀이나 麻燭으로도 부르며, 갈대로 심을 만들고 곁에 베를 얹어 맨 다음 엇과 꼴을 바른 것으로 蠟燭과 같다고 보았다.⁷ 그렇지만 이것은 꼴을 이용한 것으로 밀랍으로 만든 초와는 구별된다. 보통 야외에서 송진이 많은 가지를 햇불로 이용한 것처럼 잘 타게 하거나 서로 밀착되게 하는 첨가제였을 것으로 보인다.

『西京雜記』에는 한나라 高帝 때 閩越왕이 石蜜 5斛와 蜜燭 2百枚를 바쳤다는 구절이 있다.⁸ 閩越는 福建省에 위치한 나라였고 石蜜은 석벌이 모아 놓은 봉밀이므로, 그 지역에서 밀초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황제가 크게 기뻐한 것으로 보아, 매우 귀한 물품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蜜燭 2백매라는 많은 수량의 기록이 실제 蠟燭을 의미한 것인지는 부정확하다. 漢代 유물 중에 축이 있는 燈具가 있지만 대부분 초를 쬐기에는 높이가 낮아서, 기름을 태울 때 쓰는 심지를 고정하는 장치로 추정되기도 한다.⁹ 당시 밀초의 제작 방식이 보급되어, 대량으로 사용되고 유

4 原田淑人, 「東と西(2) 蠟燭の起源」, 『聖心女子大學論叢』19(1962), p. 70.

5 鄒樹之, 「蠟白蠟利用的起源」, 『衣史研究專刊』1, 1959(葉小燕, 「戰國秦漢의 燈及有關問題」, 『文物』326(1983.7), p. 86 재인용).

6 『周禮』秋官司寇, “司烜氏…凡邦之大事, 共墳燭庭燎” 鄭玄注, “故書墳為蕢”, 鄭司農云 “蕢蜀麻燭也”, 玄謂, “墳大也, 樹於門外曰大燭, 於門內曰庭燎, 皆所以照衆為明.”

7 李漢, 『星湖僿說』, 第6卷 萬物門, 蜂蜜, “秋官司烜墳燭疏葦為中心以布纏之飴蜜灌之若今蠟燭.”

8 『西京雜記』, 第4, “閩越王獻高帝石蜜五斛蜜燭二百枚白鷓黑鷓各一雙高帝大悅厚報遣其使.”

9 坂出祥伸, 「中国の蠟燭の歴史」, 『自然と文化』72(2003), pp. 24-25.

통되었는데에 대해서는 향후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

봉밀의 정제과정을 거쳐 밀랍으로 만든 초에 관한 자료, 즉 '蠟燭'이라는 명확한 표기는 晉代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劉義慶의 『世說新語』에는 周仲智와 周伯仁 형제의 이야기 속에 납촉이 등장하고 石季倫 편에서도 확인된다.¹⁰ 또한 남조 宋의 王僧綽은 납촉을 봉황으로 장식하였으며,¹¹ 劉義恭은 北魏 世祖에게 납촉 10挺을 헌상한 바 있다.¹² 한편 佛殿에 올리는 공양품 목록에도 나타나는데, 진나라 沈后는 光宅寺에 촉대 10挺을 바쳤고 晉王 楊廣도 菩薩戒를 받으면서 같은 수량을 사찰에 헌납하였다.¹³ 살펴본 문헌기록에 따르면, 南北朝時代에는 일상생활에서 본격적으로 밀초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왕실의 선물이나 불교 의례에 소용되는 품목에 포함되어, 당시의 가치도 추정할 수 있다. 이후 唐代가 되면 납촉의 수요가 더욱 늘어나면서 보편화된다.

중국의 경우를 참고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에 밀초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문헌기록은 찾기 어렵다. 다만 신라의 관기와 도성에 대한 이야기 속에 '燭'을 언급한 구절이 『三國遺事』에 전한다.¹⁴ 두 聖인이 거처하던 터에 훗날 승려 成梵이 彌陀道場을 열었는데, 신도들이 해마다 포산에서 향나무를 채취하여 절에 바쳤고 그것을 쪼개어 펼쳐 두면 밤에 촛불처럼 빛을 발한다는 내용이다. 촛불을 상서로운 기운으로 비유하여, 귀중한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사찰을 짓고 神異가 있었던 시기는 982년으로 후대이다.

한편, '燈'과 연관된 기록도 『三國遺事』에서 확인된다. 망덕사의 승려 善律은 저승에 갔지만 佛事를 완성하라는 뜻을 받고 환생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지옥에서 고통 받는 망자의 소원을 듣게 된다. 그녀는 억울함을 풀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선율에게 이승에 돌아가면 자신이 지니고 있던 胡麻油를 가져다 佛燈을 켜고 베를 팔아 經幅을 삼도록 부탁한다. 부처에게 공양할 때, 참 기름을 사용하여 불을 피운 것을 알 수 있다.¹⁵ 또한 紀異篇 駕洛國記에도 '燈'이 언급되는데, 신

¹⁰ 劉義慶, 『世說新語』 第6, 雅量篇, “周仲智飲酒醉 曠目還面謂伯仁曰 君才不如弟 而橫得重名 須臾 舉蠟燭火擲伯仁 伯仁笑曰 阿奴火攻 固出下策耳.”; 第30, 汰侈篇, “石季倫用蠟燭作炊.”

¹¹ 『南史』 卷22, 列傳 第12 王僧綽, “僧綽採蠟燭珠為鳳皇.”

¹² 『魏書』 卷53, 列傳 第41, “義恭獻蠟燭十挺, 駿獻錦一匹.”

¹³ 灌頂 編纂, 『國清百錄』 (大正新脩大藏經 No. 1934) 卷第2, “少主后沈手令書第十三…沈后扶月供…燭十挺…右件月月供光宅寺…王受菩薩戒疏第二十六…晉王弟子楊廣…蠟燭十挺…象牙管一管…犀角如意一柄…犀裝爪刀一口…銅燭擎一具…犀裝書刀一口.”

¹⁴ 一然, 『三國遺事』 卷第5 避隱 第8 包山二聖, “大平興國七年壬午, 有釋成梵, 始來住寺, 敝萬日彌陀道場, …玄風信士二十餘人歲結社, 拾香木納寺, 每入山採香, 劈析淘洗, 攤置箔上, 其木至夜放光如燭.”

¹⁵ 一然, 『三國遺事』 卷第5 感通 第7 善律還生, “妾之在世, 胡麻油埋於床下, 并藏緻密布於寢褥間, 願師取吾油點佛燈, 貨其布為經幅, 則黃川亦恩, 庶幾脫我若惱矣.”

라 김해 지역의 호족인 忠至에 관한 내용이다.¹⁶ 여기에서 김수로왕의 제사를 지낼 때 향과 등을 올리고 아침 저녁으로 불을 밝혔다고 하였으며, ‘香燈供之’와 ‘旦夕膏炷’라고 적었다. ‘膏炷’가 밀초를 의미한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太平御覽』火部에 ‘膏燭以明自銷’라는 표현과 비교해 볼 때, 가능성을 제외하기도 어렵다.¹⁷

통일신라시대 ‘蠟燭’의 표기는 아직 찾을 수 없지만 봉밀의 사용은 확인된다. 神文王(재위 681-692)이 夫人을 맞이하면서 내린 예물 품목에 벌꿀이 등장한다.¹⁸ 구체적 수량은 알 수 없지만 국혼의 納采品으로, 쌀과 술, 기름 등을 포함하여 135수레였던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양이었을 것이며, 養蜂으로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 양봉은 後漢代부터 관련 기록이 등장하고,¹⁹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日本書紀』皇極天皇 2년(643)에 백제의 태자 여풍이 벌통을 가져왔지만 끝내 번식하지는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볼 때,²⁰ 삼국시대 말에 養蜂을 하였고 이후 통일신라에도 계승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봉밀에 대한 내용은 『買新羅物解』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문서는 신라사절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일본의 귀족들이 작성하여 담당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구매를 원하는 물건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이 기술되었고 지금까지 30여건의 문서편이 알려져 있다.²¹ 그 중에 蜜, 蜜汁, 臘蜜 등이 일곱 차례 등장하여, 신라에서 꿀과 납밀이 수출된 상황을 알 수 있다. 문서의 품목을 정리하는 초기 과정에서 일본의 학자들은 모두 약물로 분류하였다.²² 蜜汁은 약재가루를 환약으로 만들 때, 臘蜜은 색료를 고착시키거나 주조할 때 쓰였을 것으로 파악하였다.²³ 그런데 납밀은 광택을 내거나 염색을 할 때도 사용되며, 초의 원료이기도 하다. 신라에서 꿀과 밀랍을 사용하고 일본에 공급할 정도였다면 밀초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16 一然, 『三國遺事』卷第2 紀異 第2 駕洛國記, “新羅季末有忠至匠干者…宜我畫其真影, 香燈供之…摸出真影, 安於壁上, 旦夕膏炷.”

17 李昉, 『太平御覽』卷870, 火部3, “文子曰, 鳴鐸以聲自毀, 膏燭以明自銷.”

18 金富軾, 『三國史記』卷第8 新羅本紀 第8 神文王, “三年, …以大阿滄智常納采, 幣帛十五舉, 米洒油蜜醬鼓脯醢一百三十五舉.”

19 皇甫謐, 『高士傳』卷下, 姜岐, “遂隱居以畜蜂豕為事 教授者滿於天下 營業者三百餘人.”

20 『日本書紀』卷第24, 皇極天皇, “二年 … 是歲 百濟太子餘豐 以蜜蜂房四枚 放養於三輪山 而終不蕃息.”

21 신숙, 「한국 고대 보석장식 공예품과 국제교류」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6), 〈별첨 1〉『買新羅物解』(752년) 참조.

22 東野治之는 臘蜜을 藥物로, 蜜汁은 기타로 구분하였고 皆川完一은 蜜과 蜜汁을 모두 약물로 분류하였다. 東野治之, 「鳥毛立女屏風下貼文書の研究—買新羅物解の基礎的考察」, 『史林』57권 6호(1974), pp. 16-17; 皆川完一, 「買新羅物解拾遺」, 『正倉院文書研究』2(吉川弘文館, 1994), p. 150 참조.

23 박남수, 「752년 金泰廉의 對日交易과 『買新羅物解』의 香藥」, 『한국고대사연구』55(2009), pp. 376-377.

초를 사용할 때는 촛대와 함께 불꽃을 일으키는 용구와 심지를 절단하는 가위도 필요하다. 고대에는 청동제 오목거울인 陽燧를 이용하여 태양빛을 모으거나,²⁴ 차돌과 같이 단단한 부싯돌을 마찰시켜 불을 얻었다. 초를 태울 때 일정시간이 지나면 심지를 다듬어 끝부분의 재를 없애야 한다. 심지는 보통 삼베와 같은 식물로 만드는데, 연소된 끝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꽃이 작아지거나 불규칙해지고 그을음이 생긴다. 이는 등잔에 기름을 넣고 심지로 태울 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가위를 길요하게 사용하는데, 잘라낸 심지가 다시 촛물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형태로 만든다. 가위를 자르는 날 부분에 높이를 가진 얇은 판을 부착하여, 자른 내용물이 빠지지 않게 고안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심지절단용 가위는 경주 월지에서 출토되었다(도 2).



도 2 <금동 초심지 가위>, 통일신라, 보물 제1844호, 길이 25.5cm, 두께 0.2cm, 경주 월지, 국립경주박물관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된 가위는 표면이 산화되고 오랜 먼지가 쌓여 전체적으로 검은 빛을 띠지만 원래는 도금하였고 남색 안료로 채색한 흔적도 있다. 가위는 두 개의 동판을 오려 교차한 후 굽은 못으로 고정하였고 날의 끝부분은 반원형 금동판을 붙였다. 손잡이는 마치 덩굴무늬처럼 굴곡진 형태이며, 사용하기 편하게 끝부분은 안쪽으로 오므라들게 만들었다. 앞면은 전체적으로 덩굴문이 선각되었고 바탕에는 어자문이 장식되었으며, 뒷면에는 문양이 없다. 일반적으로 가위는 철제로 만들고 형태도 단순한데 비해, 월지 출토품은 금동제로 외형과 문양이 화려하다. 용도와 재료, 꾸밈새 등으로 볼 때 <금동 수정장식 촛대>와 어울리는 유물이다. 통일신라는 초와 촛대, 심지가위를 갖추면서, 조명구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화를 누리게 된다.

²⁴ 양수는 火鏡으로 陽符 또는 金燧라고도 부르며, 예부터 불을 얻는데 사용한 기물이다. 『周禮』秋官司寇, “司烜氏…掌以夫遂取明火於日.”; 『本草綱目』上 水部第五卷, “高堂隆云 陽燧一名陽符 取火於日.”

II. <금동 수정장식 촛대>의 현황과 구성

촛대는 한 쌍으로 구성되었고 두 점은 외형과 장식이 거의 유사하다. 금속 바탕에 표면은 도금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산화되어 빛이 변한 상태이다. 초꽃이와 촛물받이, 중심기둥, 받침대 등으로 이루어졌고 개별적으로 주조하여 조립하였다. 크기는 전체 높이 36.8cm, 밑지름 21.5cm이며, 초꽃이는 지름 4.5cm, 깊이 6.8cm로 사용된 초의 굵기를 가늠하게 한다. 최근 한쪽의 촛대를 해체하여 보존처리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분리되는 부품의 현황이 파악되었고 녹을 벗겨낸 부분의 세부 관찰도 가능해졌다(도 3).²⁵ 또한 초꽃이 안쪽을 비롯한 일부에는 촛농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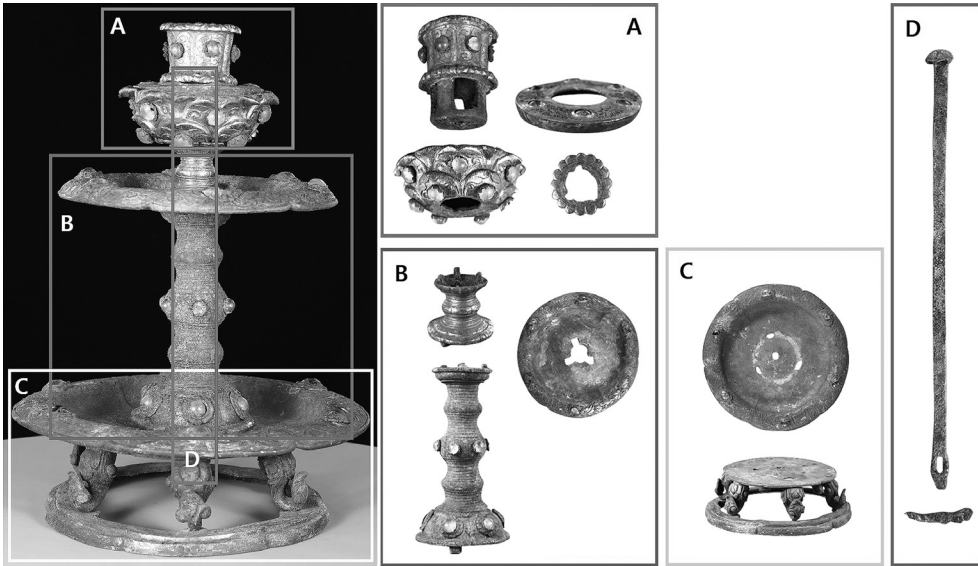


도 3 <금동 수정장식 촛대> 一雙 일부

촛대의 상단은 원통형 초꽃이, 고리 형태의 연결구, 꽃모양 받침과 연결구 등으로 나뉘며, 중심부는 짧은 기둥, 작은 받침 접시, 중심 기둥, 큰 받침 접시로 분리되고 받침대가 있다(도 4). 연결 부분은 구멍을 내고 돌출된 모양을 끼워 넣는 방식이며, 촛대 내부를 위에서 아래로 관통하는 쇠막대를 꽂아 고정하였다. 쇠막대는 못과 같은 모양이며, 아래 끝부분에 구멍이 있어 쇠비너를 꽂아 마무리하였다. 촛대는 모두 11조각으로 이루어졌고 별도 주조된 부품은 서로 단단하게 결합되는 짜임새를 갖추었다. 촛대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두 개의 받침 접시를 비롯해 모두 육화형으로 장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받침대도 귀꽃모양 다리를 여섯 군데 세우고 그 밑에 육능형 테를 돌렸다. 수정도 6개씩 짝을 이루어 감입되었고 원통형 초꽃이도 육면으로 나누어 장식하였다. 꽃송이의 잎이나 기둥의 연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체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각 부분에는 음각, 양각, 어자문기법 등으로 빈틈없이 문양이 채워져 있다.

비교할 수 있는 同時代 금속제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하는 청동제 촛대 한 쌍이 아직까지 유일하다. 대구지방검찰청 압수품으로 입고되었으며, 출토지는 알 수 없다. 높이 38cm 크기

²⁵ 촛대의 현황과 실물 크기 및 사진은 삼성미술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최근 한 점의 촛대를 보존처리하여, 초꽃이가 있는 상단은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러나 중심기둥을 비롯한 일부는 여전히 녹이 두껍게 흡착된 상태이며, 다른 한 점은 원형 보존을 위해 해체되지 않았다. 한편, 1983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에서 조사한 내용도 강순형, 앞의 논문, 각주 4)를 통해 참고하였다.



도4 <금동 수정장식 촛대> 11개로 구성된 부품의 세부

로 초꽃이와 받침접시, 중심기둥, 받침대 등으로 구성되었다(도 5). 초꽃이는 꽃잎으로 장식한 원통형이고 받침대의 다리는 귀꽃모양이다. 수정장식 촛대에 비해 다채로운 꾸밈새는 적지만 전체 구조와 크기, 세부 표현 등이 유사하여 같은 계열의 형식으로 파악된다. 크기와 재료는 다르지만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된 촛대도 참고할 수 있다.²⁶ 곱들로 만들었고 초꽃이와 촛물받이, 중심기둥, 두 개의 받침접시, 받침대 등으로 구성되었다. 앞서 살펴본 두 점의 금속제 촛대와 비슷한 형식이다. 그러나 크기를 비교하면 높이가 25.1cm로 작고 초꽃이의 지름도 1.2cm여서, 굵기가 가는 초도 사용했는지 궁금하다. 리움 소장품의 초꽃이 지름은 4.5cm이고 중국 唐代의 유물도 비슷하거나 더 큰 경우가 많다.²⁷ 南北朝時代 고분인 山西省 壽陽 庫狄廻洛墓의 금속제 촛대와 江蘇省 南京 南朝墓 출토 도제 촛대와 같이, 세 개의 작은 초꽃이가 부착된 유물도 지름이 2cm 이상이다. 따라서 국립경주박물관 소장품은 두께



도5 <청동 촛대> 一雙 일부, 통일신라, 높이 38cm, 국립중앙박물관

²⁶ 국립중앙박물관, 『첫 번째 통일 새로운 나라 통일신라』(2003), p. 134, 도판 153 참조.

²⁷ 王強, 『流光溢彩 - 中國古代燈具設計研究』(江蘇大學出版社, 2009), pp. 86-92.

가얇은 초의 제작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기름을 사용한 등잔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경주 傳人용사지의 서쪽 연못 바닥에서 발견된 동제 광명대는 출토지가 분명한 통일신라의 등화구로 주목된다. 기둥을 중심으로 상단과 하단에는 등근 접시가 있고 받침에는 높이가 낮은 다리가 세 개 달려있다. 각 부분을 따로 주조하여 결합하였고 땀으로 부착하였다. 중심기둥은 가질칼로 작업한 횡선문이 나타나는데, 삼성미술관 촛대의 기둥과 유사하다. 상단에 초를 꽂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등잔을 올려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 수정장식 촛대>와 형식은 다르지만 외형이나 제작 방법에서 공유되는 특징이 있다. 광명대는 12세기 서궁이 지은 『宣和奉使高麗圖經』에 '등불과 촛불을 받치는 제구'로 설명되어 있다.²⁸

<금동 수정장식 촛대>와 유사한 형식은 중국 唐代의 유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河南省 偃師 杏園 唐墓에서 발견된 동제 촛대도 초꽃이와 두 개의 받침접시, 받침대로 구성되었다(도 6).²⁹ 각각 네 개의 부분을 따로 만든 후 조합하여 촛대를 완성하였고 한 쌍으로 출토되었다. 촛대의 구성과 제작 방식은 삼성미술관 소장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안정감 있는 비례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었을 뿐 아무런 장식이 없다. 일본 靜嘉堂文庫美術館에 소장된 唐의 촛대 한 쌍은 금속제 유물과 같은 기형이지만 도기로 만들고 표면을 채색하였다(도 7). 중심 기둥의 가질 횡선과 같은



도 6 <銅製 燭臺> 一雙 일부, 中國 唐, 높이 34.8cm, 河南省 偃師 杏園 唐墓(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偃師杏園唐墓』, 科學出版社, 2001, 彩版 13-1)

도 7 <三彩 燭臺>, 中國 唐, 日本 靜嘉堂文庫美術館 (和泉市久保物記念美術館, 『灯火器』, 2003, p. 19 上)

²⁸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第28, 供張, 光明臺, “檠燈燭之具也 下有三足 中立一幹 狀如竹 逐節相承 上有一盤 中置一盞 盞中有可以然燭 若然燈則易以銅缸 貯油立炬 鎮以小白石 而絳紗籠之 高四尺五寸 盤面 闊一尺五寸 罩高六寸 闊五寸”

²⁹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偃師杏園唐墓』(科學出版社, 2001), pp.63-64.

묘사나 접시 테두리를 깎은 부분에서 금속제 유물을 본뜬 것을 알 수 있다. 일찍부터 금속으로 만든 촛대를 사용하였지만 당나라에서는 삼채 도기와 백자, 청자로 만든 유물도 많이 제작되었다.³⁰ 이와 같은 촛대는 앞선 시기의 燈火具에서 비롯되어, 초를 놓는 부분이 변형된 것이다. 뾰족한 침을 세워 초를 꽂는 형태보다는 원통형 꽃이가 많고 두 점을 한 세트로 결합한 유물이 다수 출토된다. <금동 수정장식 촛대>는 唐의 유행에 영향 받아 기본적인 틀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촛대의 구성과 형식은 가져 왔지만 외형과 세부 장식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당의 금속공예가 크게 발전했지만 삼성미술관 소장품의 꾸밈새와 비견할 만한 금속제 촛대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Ⅲ. <금동 수정장식 촛대>의 제작기법과 문양

1. 수정 장식과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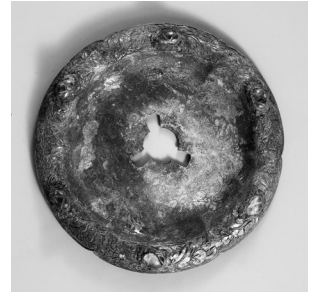
촛대에는 48개의 수정이 장식되었으며, 각 부분의 둘레를 따라 6개씩 모두 8곳에 배치되었고 현재는 일부 결실된 상태이다. 백색 투명한 것과 보랏빛이 감도는 자수정이 혼합되어 있다. 석영의 결정체인 수정은 유리와 같이 투명도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불순물에 의해 붉은색이나 보라색, 검은색을 띠기도 한다. 촛대의 수정은 장식된 위치에 따라 모양과 세팅이 다르다. 초꽃이와 촛물받이의 꽃송이, 중심기둥의 가운데 부분은 8개 꽃잎으로 만든 난집에 반구형으로 가공한 수정을 끼워 넣었다(도 3). 촛물받이 윗면과 중심기둥의 아래 부분은 원형 난집으로, 수정은 반구형이지만 밖으로 노출되는 면이 낮아서 입체감이 두드러진 앞의 장식과 차이가 있다. 특히 촛물받이 윗면은 수정을 물듯이 감입하고 주변을 따라 꽃잎을 선각하였는데, 중심기둥 아래는 난집을 따로 만들어 리벳으로 고정하였다. 보석이 빠진 빈 자리에 무늬가 드러나, 바탕 문양을 새긴 후에 수정과 난집을 부착한 것을 알 수 있다. 상단과 하단 받침 접시에도 난집을 별도로 만들어 리벳으로 접합하였다. 수정을 타원형으로 깎은 후, 꽃봉오리처럼 만들기 위해 선각으로 무늬를 새겼다(도 8). 금속판 위에 난집을 구획하고 각종 보석을 끼워 넣은 것을 嵌入 또는 嵌裝이라고 하며, 삼국시대부터 유행한 대표적인 공예기법이다.

³⁰ 王強, 앞의 책, pp. 334-352.

우리나라에서 수정을 공예 재료로 활용한 것은 이른 시기부터 확인되며, 문헌기록으로도 다수 남아 있다. 경덕왕이 月明師에게 수정 염주 108개를 하사한 내용이 도술가에 전하며,³¹ 義湘法師가 龍天八部侍從에게 수정염주를 받았다는 신비로운 설화도 『三國遺事』에 기술되었다.³² 수정으로 만든 염주가의 하사품이나 신성함의 증거로 언급된 것이다. 일본에서 수정염주를 매입했다는 〈買新羅物解〉의 기록도 남아 있어,³³ 당시의 제작 상황을 알려준다. 신라에서 수입한 유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 正倉院에는 여러 점의 수정제 염주가 남아 있어 주목된다. 통일신라 사찰터나 탑에서 출토된 수정 중에는 가운데 구멍이 뚫린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 염주였을 가능성이 높다.

수정은 사리구의 제작에도 사용되었다. 사리는 불교 신앙의 요체이기 때문에 여러 기물에 겹겹이 감싸 보관하며, 내함으로 들어갈수록 진귀한 재료로 만든다. 경주 감은사터 동·서 삼층석탑에서 나온 일괄 유물 가운데 내함인 사리병과 寶珠를 수정으로 만들었다. 수정제 사리병은 이미 백제에서도 만든 기록이 있다. 중국 六朝時代 陸晁 등이 지은 『觀世音應驗記』에는 익산 제석사의 탑 아래 사리구를 안치하였는데, 그중에 불사리를 담는 내함이 수정병이다. 내부가 비칠 정도로 투명하다고 서술되어, 백수정으로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³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새로 입수한 통일신라 금동불입상의 광배와 대좌에도 수정이 장식되어 흥미롭다(도 9). 꽃잎 모양으로 동판을 오려 난집을 만든 후, 반구형으로 깎은 보석을 넣고 끝을 오므려 완성하였다. 수정과 함께 붉은 빛이 감도는 투



도 8 〈금동 수정장식 촛대〉
상단 받침 접시 부분



도 9 〈금동불입상〉, 통일신라,
높이 30cm, 국립중앙박물관

³¹ 一然, 『三國遺事』卷第5 感通 第7 月明師兜率歌, “王嘉之賜品茶一甕水精念珠百八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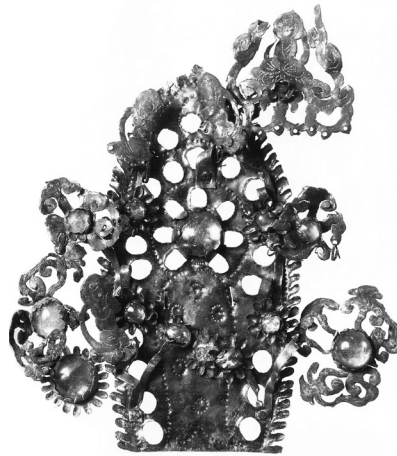
³² 一然, 『三國遺事』卷第3 塔像 第4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義湘法師…齋戒七日浮座具晨水上龍天八部侍從引入龕內參禮空中出水精念珠一貫給之.”

³³ 〈阿倍朝臣麻呂買物解〉, “五位下阿倍朝臣麻呂謹解 申念物事 廿五種 … 精念數(綿卅斤) … 天平勝寶年四六月廿二日.”

명한 구슬이 감장되었는데, 마노로 추정되지만 정확하지 않다. 가공된 수정의 생김새와 알물림 형식은 삼성미술관의 촛대와 유사하다. 광배를 보석으로 장식한 통일신라의 불상은 중국 浙江省 寧波 天封塔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³⁵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유물로 밝혀진 금동불입상은 頭光과 身光의 원형 테두리를 따라 진주를 감입하였다. 두 불상의 보석 재료는 다르지만 제작 기법과 장식에 따른 후광 효과는 일치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광배에 수정을 장식한 경우는 국내 출토품으로도 확인된다. 지난 1994년, 경남 합천 해인사의 大寂光殿을 重修하는 과정에서 금동불입상이 발견되었는데, 舉身光의 가장자리에 수정이 자리하고 있다.³⁶ 여섯 개의 꽃잎으로 난집을 만들고 수정을 끼운 뒤, 꽃잎을 오므려 고정하였다. 유사한 예는 경주 월지 건물터에서도 출토되었다(도 10). 현재 존상은 알 수 없고 광배만 남아 있지만 꽃잎 모양 난집에 수정을 감장한 것으로 앞서 살펴본 유물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다양한 크기로 가공한 수정을 적절하게 배치하였고 일부는 보랏빛이 도는 자수정이다. 월지 건물터에서는 그 밖에도 불상의 광배나 金銅幡에 장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化佛과 寶珠가 상당량 출토되었다.³⁷ 그 중에는 투명한 수정을 감장한 유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당시 불교미술품을 제작하는데 수정이 중요한 재료로 활용되었고 일정 기간 크게 유행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수정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보석 가운데 하나이다. 고려 光宗 10년(959), 周나라에 사신을



도 10 <금동광배>, 통일신라, 높이 15.5cm, 경주 월지, 국립경주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 경주시, 『경주의 황금문화재』, 2015, p. 229)

³⁴ 『觀世音應驗記』, “百濟武廣王遷都積慕蜜地新營精舍以貞觀十三年歲次己亥冬十一月天雷雨逢災帝釋精舍佛堂七級浮圖乃至廊房一階燒盡塔下礎石中有種種七寶亦有佛舍利採水精瓶又以銅作紙寫金剛波若經貯以木漆函發礎石開視悉階燒盡唯佛舍利瓶與波若經漆函如故水精瓶內外徹見蓋亦不動而舍利悉無不知所出六箇悉見於是大王及諸宮人倍加敬信發即供養更造寺貯焉.”(중국 六朝時代 陸泉 등이 지은 『觀世音應驗記』는 京都 青蓮院에 전하는 鎌倉時代 寫本을 통해 내용이 알려졌다. 牧田諦亮, 『六朝古逸觀世音應驗記の研究』(平樂寺書店, 1970), p. 60; 黃壽永, 『百濟帝釋寺址의 研究』, 『韓國의 佛敎美術』(同和出版社, 1974), pp. 128-139; 송일기, 『京都 青蓮院藏『觀世音應驗記』所收 百濟記事의 檢討』, 『서지학연구』 30(2005), 129-149 참조.

³⁵ 신숙, 앞의 논문(2013), p. 143.

³⁶ 최미연, 『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 금동여래입상』, 『月刊 海印』 305(2007); 신숙, 앞의 논문(2016), pp. 91-92.

³⁷ 국립경주박물관, 경주시, 『경주의 황금문화재』(2015), pp. 236-255, 364-365.

파견하면서 자수정과 백수정 2천과를 보냈다는 기록이 전한다.³⁸ 국가의 예물로 쓸 수 있는 질 좋은 수정을 상당량 확보했던 것을 알 수 있다. 『牧民心書』에서 丁若鏞은 각 고을에서 산출되는 보물의 목록을 인용하면서, 경주의 수정을 언급하였다.³⁹ 경주에서 오래전부터 양질의 수정이 생산되면서 지역의 특산물로 인식된 것이다. 경상도에서 수정이 채굴된 기록은 『朝鮮王朝實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전라도와 강원도 등에서도 발견되었다.⁴⁰ 또한 투명한 보랏빛을 띠는 紫色 수정도 여러 지역에서 채취되었고,⁴¹ 국내산 자수정은 현재까지도 우수한 품질로 알려져 있다. 후대의 기록이지만 수정이 경주의 특산물이었고 양질의 자수정도 생산되었기 때문에 <금동 수정 장식 촛대>에 장식된 보석은 국내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문양과 기법

촛대의 전면에는 빈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채로운 장식이 베풀어졌다. 꽃문양이 중심을 이루며, 위치에 맞게 변형되었다. 주로 선각으로 무늬를 새기고 바탕은 어자문기법으로 시문하였으며, 받침 접시의 테두리를 비롯한 일부에는 양각기법이 활용되었다. 어자문은 끝이 둥근 방울정을 이용해, 바탕을 작은 원문으로 촘촘하게 메워 주문양을 돋보이게 하는 공예기법이다. 그동안 촛대에 두껍게 붙은 녹 때문에 자세하게 관찰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바탕에 어자문이 장식되었다.

두 점의 촛대 모두 초꽃이가 있는 상단은 육안으로 쉽게 세부를 살펴볼 수 있다. 초꽃이 걸면은 여섯 개로 공간을 나누어, 중앙에 수정을 감입하고 주변에 덩굴무늬를 새겨 넣었다(도 3).

³⁸ 『舊五代史』卷138 外國列傳2 高麗, “周顯德六年, 高麗遣使貢紫白水晶二千顆.”; 『冊府元龜』卷972 外臣部 朝貢第五, “世宗顯德…六年…十一月高麗復遣使貢銅五萬斤白水精各二千顆.”

³⁹ 丁若鏞, 『牧民心書』工典 6條 第1條 山林, “大典曰 諸邑寶物產處成籍 藏於工曹 本道本邑看守 所謂寶物者 慶州產水晶…黑山海中產石雄黃之類 是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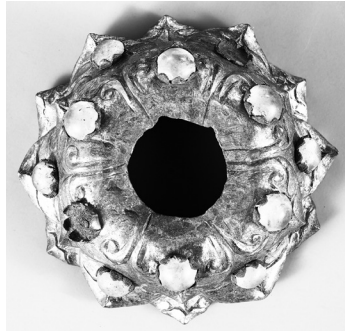
⁴⁰ 『朝鮮王朝實錄』太宗 13卷, 7年(1407) 5月 3日, “得水精石於順興府小白山.”; 太宗 23卷, 12年(1412) 3月 29日, “慶尙道都觀察使安騰進回回沙門都老所採水精三百斤.”; 太宗 27卷, 14年(1414) 6月 20日, “前司正李宥智進水精石及墨炭宥智來自江原慶尙道曰高城順興有水精石.”; 世宗 24卷, 6年(1424) 5月 27日, “慶尙道監司進順興府產出水精石.”; 世宗 27卷, 7年(1425) 2月 18日, “傳旨安東府使府所產水精石多採以進禁人私採.”; 世祖 34卷, 10年(1464) 8月 2日, “江原道觀察使進高城杆城等邑所出水精石.”; 燕山 15卷, 2年(1496) 6月 9日, “命馳書于慶尙全羅江原監司採水晶如此樣者以進.”; 燕山 45卷, 8年(1502) 8月 27日, “江原道產出水晶曾命採進.”

⁴¹ 『朝鮮王朝實錄』世祖 34卷, 10年(1464) 9月 16日, “全羅道觀察使採茂長縣紫色水精石以進命禁人採取.”; 燕山 45卷, 8年(1502) 7月 9日, “下書于全羅道觀察使崔漢源江原道觀察使朴元宗曰無瑕品好白紫水晶採取以進.”; 燕山 45卷, 8年(1502) 7月 18日, “採進紫水晶一塊曰.”

바탕에 장식된 어자문은 작은 원문이 겹치거나 부분적으로 약간의 빈틈이 눈에 들어온다. 이러한 특징은 월지 출토 가위에서도 확인되는데, 빠른 속도로 정을 친 듯 숙련된 솜씨가 느껴지지만 어자문이 비스듬하게 찍히거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곳이 있다(도 2). 같은 유구에서 수습된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금동벽걸이장식도 문양과 세부 표현이 유사하다. 통일신라는 정연하고 빈틈없는 중국 唐代의 어자문기법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난다.⁴²

초꽃이를 놓는 받침은 6개의 꽃잎이 이중으로 중첩된 형상이고 각각의 꽃잎 중앙에는 수정이 배치되었다. 꽃잎은 다시 두 개의 문양 단위로 나뉘는데, 반쪽의 팔메트 잎이 좌우로 대칭되어 하트 모양을 이루는 보상화문이다. 보상화가 특정 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팔메트에서 변형된 문양의 조합을 보상화문이라고 한다.⁴³ 사산조 페르시아의 宮殿址 벽화장식에서 시원적인 모습이 등장한 이래 여러 지역에 전파되었고 중국 당과 통일신라시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하는 금은평탈 거울,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철기, 그리고 경주 인근에서 출토된 막새 등 다양한 종류의 공예품에 보상화문이 장식되었다.⁴⁴

받침을 분리하여 밑면에서 바라보면, 수막새의 둥근 형태와 잘 비교된다(도 11, 12). 월지에서 출토된 막새는 중앙에 원을 만들어 연밥을 표현하고 주변을 따라 6개의 꽃잎을 배치하였다. 반쪽 팔메트 잎 두 개가 합쳐져 끝이 뾰족한 하트모양이 되며, 그 중심에는 촛대의 수정처럼 꽃송이가 자리한다. 문양의 배치와 세부 표현이 서로 대칭되는 것처럼 유사하다. 다른 점은 수막새의 중앙에 있는 연밥이다. 초꽃이의 받침 가운데는 기둥과 연



도 11 <금동 수정장식 촛대> 초꽃이 받침 부분



도 12 <보상화문 수막새> 통일신라, 지름 12.5cm, 경주 월지, 국립경주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 『新羅瓦磚』, 2000, p. 58, 도. 164)

⁴² 어자문기법의 유입과 특징에 대한 비교는 선행연구에서 규명되었다. 中野政樹, 『日本の魚魚子—受容と展開』, 『Museum』 393(1983), pp. 4-16; 李蘭暎, 『魚子文技法』, 『震檀學報』 71-72(1991), pp. 187-209 참조.

⁴³ 林良一, 『東洋美術の裝飾文様』(同朋舎出版, 1992), pp. 257-269; 曹圭和, 『寶相花文様考』, 『論文集』 17(국민대학교, 1980), pp. 219-238.

⁴⁴ 신숙, 『통일신라 평탈공예 연구』, 『미술사학연구』 242·243(2004), pp. 40-41.

결되는 부분이라, 연꽃의 열매가 자리할 곳은 윗면이다. 실제로 그 곳은 연밭처럼 수정이 박혀있다(도 3). 다른 곳에 장식된 수정과 달리 난집을 따로 만들어 붙이지 않고 매몰하듯 끼워 넣어 도드라짐이 적는데, 연꽃 속에 간직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로 생각된다. 두 유물은 평면과 입체라는 차이만 있을 뿐 문양의 구성과 세부 표현이 일치하여, 당시 공예품 장식의 유행을 알려준다.

촛대의 상단과 하단에 있는 두 개의 받침접시는 크기만 다르고 장식은 비슷하다. 가운데 부분은 음각하고 어자문을 채웠으며, 접시의 테두리는 양각하여 변화를 주었다(도 8). 가장자리를 따라 꽃봉오리 모양을 한 수정이 놓여 있다. 중심에 꽃을 두고 양쪽 옆으로 잎이 자라난 모습이 연속적으로 배열되었다. 화문은 넓적하고 둥글둥글한데, 서로 연결된 모습이 보상화계열로 보인다. 테두리는 돌을새김 하여 팔메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여덟 개의 잎을 가진 꽃송이와 작은 꽃봉오리는 풍성한 느낌을 주며, 잎맥은 두 줄로 표현하고 잎의 끝부분은 뾰족하게 마무리했다. 이러한 꽃문양은 〈白紙墨書 大方廣佛華嚴經〉 표지화에 나타나는 보상화문과 비교된다(도 13). 넓게 펼쳐진 꽃송이와 꽃봉오리, 잎맥 등 문양의 구성과 세부 묘사가 유사하다. 촛대는 금속에 새긴 것이지만 붓으로 그린 것과 큰 차이 없이 문양의 표현이 자연스럽다. 또한 正倉院에 소장된盒의 뚜껑에도 같은 계통의 보상화문이 투각되었고 세부 표현에도 공통점이 있다.⁴⁵ 삼성미술관에 소장된 寫經은 754년부터 755년에 걸쳐 만든 것이고 일본 유물의 하한연대도 752년으로 연구되었다. 촛대와 문양의 유형이 비슷한 두 유물을 참고하면, 시대의 유행을 알 수 있고 제작시기를 고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중심기둥에도 섬세한 장식이 돋보인다. 굴곡이 있는 형태로 세 개의 마디가 있고 위와 아래의 단면은 모두 육화형이다. 가운데 마디와 밑 부분은 여섯 개로 공간을 나누고 수정을 감입하였다. 난집의 모양과 수정의 크기는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중심에 꽃을 두고 잎이 펼쳐진 형태는 같다. 가운데 마디는 넓지만 그 위와 아래 마디는 좁게 만들었다. 작은 공간이지만 마찬가지로 6개 면을 구획하여, 꽃을 새기고 원문을 바탕으로 메웠다. 마디와 마디 사이는 굵게 가질하여 만든 가로선이 보인다.



도 13 〈白紙墨書 大方廣佛華嚴經〉表紙畫, 통일신라 754-755년, 국보 196호, 삼성미술관 리움

⁴⁵ 奈良國立博物館, 『正倉院展』(2007), pp. 11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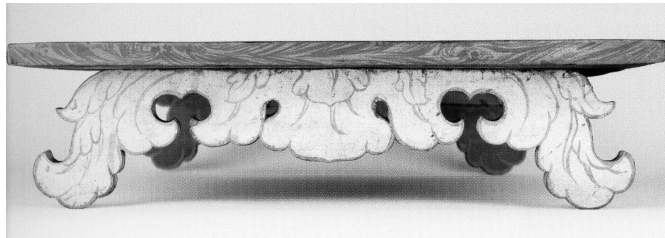


도 14 <금동 수정장식 촛대> 반침대 부분

반침대는 접시를 올리는 판과 귀꽃, 그리고 귀꽃 다리를 잇는 테로 이루어졌다(도 14). 판은 연결 부분이기 때문에 장식이 없고 육능형 테두리에는 덩굴문과 어지문을 새겨 넣었다. 반침대의 중심은 6개로 세워 올린 귀꽃 다리이다. 한쪽 부분은 위를 떠 받치고 꼬리는 말아 올렸으며, 양각기법으로 세부를 표현하였다. 수각형처럼 보이지만 머리 부분은

동물이 아니고 꽃봉오리처럼 생겼으며, 양쪽 옆과 꼬리 부분은 팔메트 모양이다. 유사한 예는 통일신라 불상의 대좌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월지 출토 금동불입상, 충남 금산 음지리 출토 금동불입상, 국립중앙박물관소장 금동불좌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⁴⁶ 대좌에 팔메트형 귀꽃을 돌을 새김 하는 경우는 주로 8세기 중반 이후의 불상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조각에서는 覆蓮座와 연결된 끝부분을 말아 올려 꼬리만 있는데 비해, 촛대의 귀꽃은 별도로 만들어 붙였기 때문에 머리와 꼬리를 갖추고 있다. 또한 대좌는 팔메트 끝부분이 안쪽으로 오므라든 형태지만 촛대는 밖을 향해 있어, 구별되는 특징이 엿보인다. 귀꽃의 뾰족한 끝을 바깥으로 살짝 들어 올린 것은 상단의 꽃송이가 활짝 펼쳐진 모습과 같아, 전체 외형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

촛대의 귀꽃과 같은 모양은 正倉院에 전하는 奩이나 几, 盤 등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다(도 15).⁴⁷ 팔메트를 반침으로 형상화하고 꼬리 부분을 살짝 밖으로 들어 올린 모습이 공통되며, 대체로 8세기에 유행하는 특징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 불상이나 석등에 보이는 귀꽃의 양식적 특징이 8세기 말이나 9세기로 인식되어, 촛대의 제작시기를 추론하는데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촛대의 귀꽃은 조각이나 건축에 나타나는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다른 공예품의 반침과 연결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합이나 촛대와 같은 기물의 반침으로 팔메



도 15 <粉地木理繪長方几> 768년 추정, 正倉院 中倉 (奈良國立博物館, 『正倉院展』, 2014, p.104)

⁴⁶ 국립중앙박물관,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2008), pp. 94-95, 99, 107, 110-111 도판 참조.

⁴⁷ 奈良國立博物館, 앞의 책(2007), p. 56, 도판 31; 奈良國立博物館, 『正倉院展』(2012), p. 82, 도판 53 참조.

트형 귀꽃이 먼저 고안되었고 점차 다른 미술품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통일신라 석등에 표현된 귀꽃이 9세기 이후 장식화 되는 경향도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IV. 新文化의 전파: 일본과의 교류

752년 6월, 신라 왕자 金泰廉을 필두로 700인에 달하는 거대한 사절단이 일본에 도착했다.⁴⁸ 당시는 奈良 東大寺의 大佛 開眼供養會가 열리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그와 관련한 다양한 물품이 필요한 시기였다. 신라에서도 경제적 교류에 목적이 있었고 일본의 귀족들은 원하는 선진물품을 살 수 있는 기회였다. 앞서서도 언급된 매입 신청서 『買新羅物解』에는 약재, 향료, 안료, 금속제 기물 등이 다종다양하게 기술되었으며, 일부는 현재 유물로 남아 있다. 특히 구입 품목 중에 蜜汁, 臘蜜, 燭臺 등이 포함된 문서가 주목되는데,⁴⁹ 신라의 꿀과 밀랍, 촛대를 함께 수입한 내역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正倉院에는 奈良時代의 밀랍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관심을 끈다. 벌집을 채취하여 분리한 기름을 둥글고 납작한 원반형으로 만들고 중앙에 구멍을 뚫어 실로 꿰어 놓았다(도 16). 20개가 세트 구성되어, 모두 30묶음이 남아 있다. 이동이 편리한 형태로 보관되었으며, 유통되었던 원래의 상황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근래 밀랍의 성분 조사에서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에 분포하는 서양종이 아닌 동양종 꿀벌이 만든 것으로 밝혀졌는데,⁵⁰ 한국의 재래종도 같은 계열이다. 현존하는 正倉院 소장품의 일부가 『買新羅物解』에 기록된 신라의 밀랍일 수도 있다. 일본에서 수입한 밀랍의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촛대와 나란히 주문한 점으로 보아, 초의 재료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기록에 표기된 燭臺가 <금동



도 16 蜜蠟, 지름 13.4~7.4cm, 正倉院 南倉
(奈良國立博物館, 『正倉院展』, 2007, p. 21)

⁴⁸ 『續日本記』卷第18, “己巳大宰府奏新羅王子韓阿口金泰廉貢調使大使金暄及送王子使金弼言等七百餘人.”

⁴⁹ <口…口申請應物事>, “牙笏 沈口 丁香 … 蜜汁 … 腦蜜 … 燭臺 蘓芳 天平勝寶四年六月廿四日 事業從八位上日置酒持.”

⁵⁰ 奈良國立博物館, 앞의 책, p. 21.

수정장식 촛대)와 관련이 있고 일본의 귀족들이 애호했던 품목이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정을 더욱 뒷받침하는 유물이 正倉院 南倉에 소장된 초심지 가위이다(도 17).

일본에 전하는 가위는 독특한 외형과 장식으로 주목받았지만 국립경주박물관 소장품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용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도 2). 경주의 가위에 반원형 금동판이 달린 것과 마찬가지로, 正倉院 소장품에서 떨어져 나간 금속구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심지절단용 가위로 확인되었다.⁵¹ 두 가위는 모두 두께 0.2cm 정도의 동판으로 만들었고 유려하게 구불거리는 손잡이와 날 부분도 동일하다. 다만 일본의 가위는 장식이 없고 월지 출토품은 전면에 문양을 새겨 넣어, 세부 표현에 좀 더 정성을 기울인 점이 다르다. 두 유물과 비교할 수 있는 예는 중국 唐代에서도 아직 발견된 바가 없다. 일본에서 신라의 촛대를 구입하면서, 초심지 가위도 함께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밀초는 기름을 쓰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간 방식으로 통일신라시대 조명구로 정착되었다. 단순한 실내용 등화구가 아니라 왕실 의례의 권위를 높이고 불교 의식의 경건함을 강조하는 데에도 중요한 물품이었다. 초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기물이 고안되었고 그것을 향유했던 계층의 미의식에 호응하면서, <금동 수정장식 촛대> 및 <금동 초심지 가위>와 같은 수준 높은 공예품이 완성되었다. 촛불이 스스로를 태워 어둠을 밝혀주듯, <금동 수정장식 촛대>는 통일신라의 물질문화와 금속공예의 성취, 일본과의 교류 등을 진술하고 있다. 촛대의 외형과 장식기법, 문양의 특징 등을 同時代 유물과 함께 검토하고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8세기 중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금속제 유물의 재질 분석 자료가 축적되면, 경주 월지 출토품이나 正倉院 소장품과의 면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도 17 <白銅剪子>, 길이 22.6cm, 두께 0.2cm, 正倉院 南倉 (奈良國立博物館, 『正倉院展』, 2002, p. 59)

*주제어(key words)_통일신라(Unified Silla), 금동촛대(Gilt-bronze Candlestick), 밀초(beeswax candle) 수정(Crystal), 正倉院(Shosoin), 買新羅物解(Bai Shiragi Mononoge)

▣ 투고일 2016년 6월 12일 | 심사개시일 2016년 6월 16일 | 심사완료일 2016년 7월 22일 ▣

⁵¹ 鈴木靖民, 『正倉院の新羅文物』,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85), p. 427.

참고문헌

『舊五代史』
『國清百錄』
『南史』
『牧民心書』
『本草綱目』
『三國史記』
『三國遺事』
『西京雜記』
『宣和奉使高麗圖經』
『星湖僊說』
『續日本記』
『世說新語』
『魏書』
『朝鮮王朝實錄』
『周禮』
『太平御覽』

『경주의 황금문화재』, 국립경주박물관, 경주시, 2015.

『국보 금속공예』,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2008.

『삼성미술관 선집 고미술』, 삼성미술관 리움, 2004.

『新羅瓦塼』, 국립경주박물관, 2000.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국립중앙박물관, 2008.

강순형, 「수정박이 금동초꽃이 살핌」, 『문화재』28, 1995, pp. 211-225.

박남수, 「752년 金泰廉의 對日交易과 「買新羅物解」의 香藥」, 『한국고대사연구』55, 2009, pp. 341-391.

신 숙, 「통일신라 평탈공예 연구」, 『미술사학연구』242·243, 2004, pp. 29-61.

_____, 「한국 미술에 보이는 보석재료와 장식」, 『금은보화』, 삼성미술관 리움, 2013, pp. 135-145.

_____, 「한국 고대 보석장식 공예품과 국제교류」,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이난영, 「魚子文 技法」, 『農檀學報』71-72, 1991, pp. 187-209.

- _____, 「奈良 正倉院에 보이는 新羅文物」, 『中齋 張忠植博士 華甲紀念論叢』歷史學篇上, 1992, pp. 641-651.
- _____, 「韓國古代의 燈燭具 - 高麗時代의 光明台를 中心으로」, 『高麗美術館研究紀要』5, 2006, pp. 259-281.
- 조규화, 「寶相花文樣考」, 『論文集』17, 1980, 국민대학교, pp. 219-238.
- 주경미, 「금동수정감장촉대」, 『국보 금속공예』,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2008, pp. 186-191.
- 진홍섭, 「金銅水晶嵌裝燭臺」, 『미술사학연구』118, 1973, pp. 16-20.
- 皆川完一, 「買新羅物解合遺」, 『正倉院文書研究』2, 吉川弘文館, 1994, pp. 146-153.
- 奈良國立博物館, 『正倉院展』, 2002.
- 奈良國立博物館, 『正倉院展』, 2007.
- 東野治之, 「鳥毛立女屏風下貼文書の研究-買新羅物解の基礎的考察」, 『史林』57-6, 1974, pp. 1-37.
- 葉小燕, 「戰國秦漢的燈及有關問題」, 『文物』326, 1983.7, pp. 78-86.
- 鈴木靖民, 「正倉院の新羅文物」,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85, pp. 417-432.
- 王強, 「流光溢彩 - 中國古代燈具設計研究」, 江蘇大學出版社, 2009.
- 原田淑人, 「東と西(2) 蠟燭の起源」, 『聖心女子大學論叢』19, 1962, pp. 65-77.
- 林良一, 『東洋美術の裝飾文樣』, 同朋舎出版, 1992.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偃師杏園唐墓』, 科學出版社, 2001.
- 中野政樹 編著, 『日本の美術』177燈火器, 至文堂, 1981.
- _____, 「日本の魚魚子-受容と展開」, 『Museum』393, 1983, pp. 4-16.
- 坂出祥伸, 「中国の蠟燭の歴史」, 『自然と文化』72, 2003, pp. 24-31.
- 和泉市久保物記念美術館, 『灯火器』, 2003.

국문초록

삼성미술관에 소장된 국보 제174호 <금동 수정장식 촛대>는 통일신라의 물질문화와 금속공예의 성취, 일본과의 교류 등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촛대는 조명기구로 초를 사용하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공예품이다. 기름을 고체로 만들고 심지를 넣어 태우는 초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동양에서는 야생의 벌집에서 채취한 黃蠟과 백랍층의 분비물에서 얻는 白蠟을 주요 원료로 활용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봉밀과 밀랍에 대한 문헌기록이 남아 있어, 밀초를 제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밀초는 기름을 쓰는 것보다 진보된 방식이지만 재료를 얻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왕실이나 귀족, 또는 종교와 관련된 특정 계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었다.

<금동 수정장식 촛대>는 한 쌍으로 구성되어 11조각으로 별도 주조한 후 조립하여 만들었다. 그리고 음각이나 양각, 어자문기법을 활용하여, 연화, 보상화, 덩굴무늬 등 다채로운 꽃문양을 시문하였으며, 48개의 백수정과 자수정이 장식되어 더욱 화려한 모습이다. 후대의 문헌이지만 경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수정이 채굴된 기록이 전하고 있어, 촛대에 감장된 보석은 국내산일 것으로 생각된다.

초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촛대와 함께 초심지가워도 필요하다. 초를 태울 때 일정시간이 지나면 심지를 다듬어 끝부분의 재를 없애야만 불꽃이 불규칙해지거나 그을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심지절단용 가위는 날 부분에 높이를 가진 얇은 판을 부착하여, 자른 내용물이 빠지지 않게 고안한 형태로 만든다. 경주 월지에서 출토된 금동제 가위는 덩굴무늬처럼 굴곡진 손잡이와 반원형 금동판이 부착된 날 부분으로 구성되어, 심지를 자르는 데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앞면은 덩굴문을 선각하고 바탕에 어자문을 장식하였으며, 뒷면에는 문양이 없다. 일반적으로 가위는 철제로 만들고 형태도 단순한데 비해, 월지 출토품은 금동제로 외형과 문양이 화려하다. 용도와 재료, 꾸밈새 등으로 볼 때 <금동 수정장식 촛대>와 어울리는 유물이며, 재질과 장식기법, 문양 등에서 촛대와 공통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752년에 일본을 방문한 신라사절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買新羅物解>중에는 꿀과 밀랍, 촛대가 기록되어 있다. 밀랍은 초의 원료이며, 奈良時代 유물이 현재 正倉院에 보존되어 있다. 근래의 성분 조사에서 正倉院의 밀랍이 동양종(Apis indica) 꿀벌이 만든 것으로 밝혀졌는데, 한국의 재래종과 같은 계열이다. 또한 기록에 표기된 燭臺가 <금동 수정장식 촛대>와 관련이 있고 일본의 귀족들이 애호했던 품목이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는 유물이 正倉院에 소장된 초심지 가위인데, 경주 월지 출토 가위와 크기, 외형, 용도 등이 매우 유사하다. 통일신라시대에 초와 촛대, 초심지 가위로 구성되

는 조명구 일체가 일본에 전달된 정황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초는 단순한 실내용 등화구가 아니라 왕실 의례의 권위를 높이고 불교 의식의 경건함을 강조하는 데에도 중요한 물품이었다. 따라서 초와 관련된 다양한 기물이 제작되었고 그것을 향유했던 계층의 미의식에 호응하면서, <금동 수정장식 촛대>와 <금동 초심지 가위>와 같은 수준 높은 공예품이 완성되었다. 촛대의 외형과 장식기법, 문양의 특징 등을 同時代 유물과 비교하고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8세기 중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는 밀초에서 비롯된 새로운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시켰고 이러한 선진 문화를 다른 나라에 전파할 수 있는 국제적 역량을 갖춘 시대였다.

Abstract

**Artistic Achievements and International Exchange of
Metalwork of the Unified Silla Period: *Gilt-bronze Candlesticks with
Inlaid Crystal Ornaments*, National Treasure No. 174**

Shin Suk^{*}

The *Gilt-bronze Candlesticks with Inlaid Crystal Ornaments* (National Treasure no. 174) in the collection of Leeum, Samsung Museum of Art has significant research value, highlighting the accomplishments in metalwork and material culture of Unified Silla, as well as their trading relationship with Japan. Candlesticks attest the early use of candles. The origin of candles is unclear, but candles were generally made of yellow wax harvested from wild beehives and white wax obtained from the secretions of *Ericerus pela*. A historical record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on honey and wax suggests the possibility of producing beeswax candles. The use of beeswax candles is a more advanced method than using oil lamps. However, beeswax candles were only used by the royal court, aristocracy, and certain religion-related classes because it was difficult to obtain the material.

This pair of *Gilt-bronze Candlesticks* comprised of eleven individually cast pieces, are gold plated. The candlesticks feature a diverse range of floral designs including lotus, peony, and floral scrolls, employing diverse techniques including incising, raising, and ring-punching. Moreover, the rock crystals and amethysts inserted in sockets add to the extravagance of the candlesticks. The rock crystals are presumed to be of Korean origin as there are records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 though from later generations – that rock crystal was mined from a number of areas in Korea including Gyeongju. Though the form of the candlesticks originated from China, the candlesticks in question are an unparalleled example of metalwork with sophisticated and elaborate decorations. Along with the candlesticks, candlewick trimmers are essential for making use of candles effectively. The gilt-bronze candlewick trimmer excavated from Wolji Pond in Gyeongju has a half-circling frame around its cutting blade. This unique feature was adopted for preventing the trimmed wick from falling into the melted wax. The trimmer and the candlesticks share common characteristics in their use of material, decorative techniques, and design.

A purchase register, *Bai Shiragi Mononoge* (買新羅物解), of the Japanese aristocracy in 752, lists items to be purchased from Silla, which includes honey, wax, and candlesticks. Wax has been used in various productions including candles, and the wax from the Nara period is preserved in the Shōsōin Repository. In a recent component analysis, it was revealed that the wax in the Shōsōin collection was of *Apis indica*, a homogeneous type to native Korean bees. Moreover, the “candlesticks” written in the register can possibly be related to the *Gilt-bronze Candlesticks*, which was highly likely to have been esteemed by the Japanese aristocracy. This presumption is supported by the candlewick trimmer in the Shōsōin collection, which is similar in size, shape, and use to the one excavated from Wolji Pond. This demonstrates that Unified Silla provided lighting sets composed of candles, candlesticks, and candlewick trimmers to Japan.

Candles were not just used for lighting indoor but for raising the authority of royal protocols and emphasizing the piety of Buddhist rituals. Therefore, diverse objects associated with candles were produced, and highly sophisticated metalwork such as the *Gilt-bronze Candlesticks* and *Gilt-bronze Candlewick Trimmer* (Treasure no. 1844) were produced in response to the aesthetics of the class that enjoyed such objects. In comparison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ape, decorative techniques, and design of the candlesticks with other metalwork of the time and in consideration of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the *Gilt-bronze Candlesticks* are possibly dated to the mid-eighth century. In the Unified Silla period, they were not only capable of adopting and developing a new culture of wax candles, but also promoting the advanced culture of Korea to foreign societies.